Entertainment p/20

국제시장 韓영화 흥행 2위

Sports p/21

기성용 체력 한계 어디까지

니들이 '꼼수'를 알어?

세습재벌 문제 없나 ◆ 相生 - 현대차 그룹

엠코 이어 글로비스도 공정거래법 벗어나
겉으론 '법 존중' 실제론 '일감 몰기' 지속

미쳐
4MINUTE

센 언니 '미쳐'로 컴백, 포미닛 p/18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이완구 – 재벌 – 언론 p/22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구제역 발생 현황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8일 홍성군 구제역 발생 지역을 방문해 방역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홍성군에는 충남의 대표적인 축산단지가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실장 잔류할 듯

청와대 소폭 개각… 이완구 후보 인준 후 단행

청와대는 8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뒤 소폭 개각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심이 집중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더 두고 보자'며 잔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박(비박근혜) 일색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요구해 온 만큼 당·청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각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소폭이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오는 10~11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지만 본인과 자녀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할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개각 인사 역시 지연이 예상된다.

민 대변인은 김 실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두고) 보자"며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선출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비서실장과 비서관 및 면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적쇄신에 관한 한 당·청 간 인식차가 크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에 김재춘 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박민권 현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에 최재유 현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장관 인사의 폭과 관련해서는 공석인 해수부 장관 외에 통일부 장관 교체설도 나오고 있다. 한 통일연구기관 전문가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3년차에 접어드는데 그동안 남북대화를 정부 당국이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가 좌지우지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 돼 왔다"며 "현재 대북라인이 충분한 정책적 유연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없다면 3년차에 접어들기 전에 전면 쇄신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러시아 전승절 참석 '글쎄'

박근혜 대통령의 연내 미국 방문계획이 확실시됨에 따라 오는 5월에 있을 러시아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 의 참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7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박 대통령의 연내 미국 방문 계획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현재의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 및 국제정세에 비추어 금년 중 박 대통령의 방미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는 데 한·미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성공적인 방미가 되도록 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방미 시기, 형식 및 의제 등 구체사항에 대해서 외교채널 등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앞두고 있다. 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측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행사 참석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박 대통령의 참석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측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국이 공동된 대북 정책 기조 속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비핵화 프로세스를 조기에 가동하기 위한 공조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기념행사 참석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10년간 북간첩 42% 위장 탈북민

북한당국이 간첩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남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윤영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8일 '월간 북한' 2월호에 기고한 '탈북민 증가와 위장 간첩 실태' 란 보고서에서 "탈북민 유입이 늘기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 북한당국은 위장 탈북민 간첩 침투를 통해 국가안보망을 흔드는 대남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안당국이 검거해 구속한 북한 간첩의 42%가 위장 탈북민 간첩이었다. 북한 대남공작기관별로 파견한 탈북민 위장 간첩은 국가안전보위부 10명, 정찰총국 5명, 군 보위사령부 3명, 조선노동당 35실 1명, 기타 2명이었다.

김 연구관은 "위장 탈북민 간첩이 일반 탈북민 속에 편승해 침투한 뒤 공안당국의 합동신문만 무사히 통과하면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해 정착지원금과 임대주택 등을 지급받아 주거지에 정착할 수 있고 신변보호 기간이 끝나면 국내외 활동이 자유로워 공작지령 수수 등의 대남공작 활동의 기반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탈북민 행렬에 합류해 잠입한 위장 탈북민 간첩은 북한이 고정 간첩이나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령한 ▲국가기밀 탐지 ▲특정인사 암살 ▲탈북민 북송 및 재입북 유도 ▲위장 귀순 후 지령 대기 ▲탈북민 동향 파악 ▲재중 국정원 직원 파악 ▲고정간첩과의 연계 ▲위계 전향 ▲재미교포 유인 ▲사회혼란 유언비어 조작 유포 ▲친북성향 언론 파워 웹분 ▲이산가족 명단 수신 ▲군사기밀 탐지 ▲전략물자 구입과 산업정보 유출 ▲북한 선전물 유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침투 방법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서 직접 양성한 간첩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남파시키는 방법 ▲사업상 남한과 중국을 오가는 탈북민을 포섭 납치하거나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탈북민들은 불법월경죄로 체포 납치해 대남 공작원 기본교육을 시킨 후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 ▲중국 체류 강제북송 탈북민 중 정보적 가치가 있는 자의 가족을 볼모로 하거나 처벌 면제를 미끼로 포섭해 대남공작원 기본교육을 시킨 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남파하는 방식 등이다.

"이 후보자는 총리 자격 없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 후보자가 비롯어진 언론관 인사청문회 위원회 등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병역의혹 이완구 차남, 이번엔 건보료 의혹

"억대 연봉 받고 안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미국계 로펌의 변호사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MRI촬영을 통한 검증 이후에도 병역면제 사유가 된 연골 인대 수술을 본인이 요청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건강보험공단이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남 이모씨는 미국계 로펌에서 일하면서 별도로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의 편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240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미국계 로펌 폴헤이스팅스사에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 측이 공개한 자료에는 이씨가 근무 기간 동안 약 580만홍콩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7억7000만원)를 받았다고 나와 있다. 약 2억3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셈이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을 대입하면 이씨는 연 약 720만원, 해당기간 합계로 2400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국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비율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이 후보자가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으로, 이 후보자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충남 부여로 주소를 옮긴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형이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그러면서 공단부담금 수급은 정지 받지 않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을 수급했다.

진 의원은 "많은 서민들이 이미 부담스러운 건보료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액 연봉에도 보험료는 안 내고 수급만 받는 얌체 가입자가 총리 후보자의 아들이라면 그런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당대표에 문재인 선출

대선도 재수하면 1등 할까요?

文, 대권 재도전 교두보 마련…당 분열 위기 넘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서 45.3%의 득표율로 승리해 대권 재도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문 신임 당대표는 부산의 명문 경남고에서 수재로 이름을 날렸지만 1971년 서울대 진학에 실패해 재수 끝에 72년 경희대 문과 전체 수석으로 법학과에 입학했다. 대선 재수도 과연 1등을 할 수 있을까. 대입 재수 시절 문 대표는 학창시절 내내 자신을 괴롭힌 가난과 싸워야 했다.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대선 재수는 '빈곤한 비전'과의 싸움이자 '분열된 야권' 내부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문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박지원 의원의 네거티브 전략에 휘말려 막장 싸움을 되풀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근혜정부의 '복지 없는 증세' 정책의 전방위적인 비판에 부딪혀 동력을 상실해 가는 와중에도 기존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다시 제시하는 데 그쳤다. 국민들 중 소득주도성장론의 실체를 알고 있는 이는 드물다. 문 대표의 비전 제시가 보여주기에 그쳤다는 의미다.

문 대표는 경선 내내 '이기는 정당'을 위해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외쳤다. 문 대표가 '이기는 정당'을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은 '네트워크 정당', '스마트폰 정당'이었다. 문 대표는 "저도 당 재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모른다"며 "당원들이 스마트폰 버나만 보면 당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당과 당 밖의 지지자들을 한데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당내 반대파에서는 외부기반이 강한 문 대표의 전략적 선택이라며 경계해 왔다. 실제 김한길 전 대표 체제에서 '네트워크 정당' 추진 작업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김 전 대표 체제에서 실무작업을 담당한 정병철 전 새정치연합 인터넷소통위원장은 지난해 당을 떠나면서 "온 오프 네트워크 정당 시스템을 구축해 자료를 배포할 준비까지 모두 마쳤지만 지도부는 활성화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당내에는 '네트워크 정당'보다는 중도주의 로의 노선 변경을 원하는 세력도 있다.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 노선 변경을 원하는 세력과 문 대표 지지자들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분당설'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총선·대선 승리에 앞서 문 대표가 넘어야 할 시련이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문재인 신임 당대표. /연합뉴스

북적이는 전통시장 설 연휴를 앞둔 8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에는 제수용품을 사려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핵연료 재처리 '숨통'

비확산 조건부 '사용후 핵연료' 형상 변경 가능

앞으로 핵확산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 개발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현재 협정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연구 개발은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으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의 핵심 관심 사항인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새 협정문에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이 빠진다. 이 조항은 미국 정부가 원자력에너지법 123조에 따라 원자력협정을 새로 맺거나 개정하는 나라들에게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도록 하고 농축·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또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미국의 사전 동의 의미)는 표현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미국의 비확산 정책도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후 핵연료의 형상을 변경하려면 핵 확산 우려가 없다는 점이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미 간 협의에 따라 비확산 차원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 미국이 우리의 형상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부속서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급한 일부 연구 개발 과제가 이미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국은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과 사용후 핵연료 저장 등 3개 분과위로 구성된 원자력 연료주기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새 협정 체제 가운데 핵확산 우려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원전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 문제와 관련해 현재 협정에는 농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새 협정에는 농축도 재처리와 마찬가지로 한·미 간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협상의 3대 목표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새 협정문에 어떻게 담을지 미국과 합의하고 사실상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소식통은 "주요 내용에 대한 협상은 다 됐으며 남은 부분이 협상의 타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고 말했다.

새 협정 기간은 미국의 관례에 따라 30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된다. 새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미국은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한·미는 새 협정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시간을 더 갖기 위해 2013년 4월 현행 협정의 만기를 2년 연기한 바 있다. 이 2년 연장안을 발효하는데 11개월 정도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은 조만간 협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윤아기자 yoona19@m

예산부족으로 안보 위기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 탓…KFX·KAMD 빨간불

동시다발적인 대형 전력증강사업 추진으로 2020년까지 방위력개선 분야의 소요 재원에 비해 국방예산이 30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8일 드러났다.

한국형전투기(KFX)·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업 등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일각에서는 안보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 재원은 96조원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위력개선분야 예산 66조원을 30조원 초과하는 실정이다.

백 의원은 "KFX·차기전투기·차기다련장 등 주요 무기 획득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준비 중인 킬 체인과 KAMD 구축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단순한 무기획득사업 연기가 아니라 전력증강계획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 심각한 안보위기"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이명박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이어져 온 국방예산 홀대가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주요 대형사업들의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2016~2020년 소요 재원이 급증했고 그 결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차이가 심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윤아기자

복지 구조조정 하면 매년 12조원 절감

7가지 주요 복지사업의 구조조정만으로 매년 12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불필요한 복지 지출을 먼저 손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내놓은 분석이다.

8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7가지 분야에서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새누리당 개혁안으로 40년간 매년 3조5000억원 절감) ▲무상급식(소득하위 70% 제한 적용으로 매년 8000억원 절감) ▲건강보험·국민연금(하장기체납자 대상 매년 2조5000억원 징수) ▲복지사업(누수액 매년 최소 2000억원 차단) ▲지방교육재정(이월·불용액 4조2000억원 구조조정)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국고보조금(매년 최소 1조원 절감) ▲감사원 감사(변상·추징·회수·보전 금액 매년 약 3000억원) 등이 그것이다.

이 관계자는 7가지 항목을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적은 목록)'로 설명하면서 "이들 7가지 복지 구조조정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면 12조원 넘는 재정지출이 절감돼 지난해 발생한 세수 결손액 11조원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며 "이런 노력을 다 하고 나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아베 역사관 문제 많다

일본국민 44% "침략사죄 표현 담아야"
미국 사학자들 '역사왜곡'에 집단 성명

일본군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는 등 아베정권의 역사왜곡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6~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8월 발표할 '전후70년 담화'에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 표현을 써야 한다는 응답이 44%에 달했다고 8일 보도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34%에 그쳤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도 아베정권의 역사왜곡에 쓴소리를 내고 있다.

우에 요시히사 공명당 간사장은 "총리 담화는 국가의 기본적인 자세를 안팎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베 정부가 담화 작성에 앞서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역사교과서까지 수정하려는 아베정부의 역사왜곡 시도에 미국 역사학자들까지 들고일어났다.

미국역사협회(AHA) 소속 학자 19명은 "어떤 정부도 역사를 검열할 권리가 없다"는 집단성명을 통해 아베정부의 역사왜곡 시도를 통렬히 비판했다.

고개숙인 아베 총리 /AFP 연합뉴스

성명은 "일본군 위안부 숫자가 잘못됐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이 명백히 잘못됐다"며 "일본 정부문헌에 정통한 역사가인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주오 대학의 신중한 연구와 아시아 생존자들의 증언은 국가가 후원한 성노예에 준하는 시스템의 본질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일본 우익 극단주의자들은 위안부 문제를 기록으로 남기고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쓰는데 관여한 언론인들과 학자들을 위협하고 겁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국명기자

미국, 결국 지상군 파견하나

4월 투입 가능성…인질 사망설에 압박 거세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미국 지상군 파견 가능성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인간방패'까지 내세운 IS를 국제동맹군의 공습만으로는 격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7일(현지시간) CNN방송은 미 중부사령부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미군이 IS의 주요 점령지에서 이라크 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4월 투입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이라크 2대 도시이자 유전지대인 모술을 되찾기 위해서는 공습과 이라크군 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여성 인질 사망설은 지상군 파병을 거부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IS는 2013년 8월 납치한 케일라 진 뮬러가 요르단의 공습으로 6일 시리아 락까의 외곽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종전과 달리 IS가 사망한 인질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개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나세르 주데흐 요르단 외무장관은 "인질을 '인간방패'로 세우고 공습으로 죽었다는 주장은 테러리스트들이 수십 년간 써온 낡고 역겨운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만약 IS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뮬러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지상군 파병 압박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이 IS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 온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IS를 성공적으로 격퇴하려면 약 1만명의 미 지상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요르단·UAE, IS 보복 폭격

국제동맹군의 폭격은 사흘 연속 이어졌다.

요르단 국영 방송은 7일 "공군 조종사들이 출격해 IS 테러 단체의 근거지를 폭격했다"며 "지난 사흘 간 최소 60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전했다.

미군이 주도하는 국제동맹군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하루 동안 시리아에 11차례, 이라크에 15차례 공습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 공습을 중단했던 아랍에미리트(UAE)도 전투기 F-16이 중심이 된 1개 비행중대를 요르단에 주둔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아랍의 봄' 3년 만에 실패로 7일(현지시간) 예멘 수도 사나의 한 스타디움에서 시아 후티 반군 병사들이 정권을 잡은 것을 축하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2011년 2월 독재자 알리 압둘라 살레가 퇴출당하면서 시작된 '아랍의 봄'은 시아 후티 반군의 구데타 성공으로 사실상 3년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신화 뉴시스

'로맨티스트' 저커버그

부인 근무했던 병원에 810억원 기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의 창립자겸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로맨티스트'의 면모를 유감없이 뽐냈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SFC)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부인인 소아과 의사 프리실라 챈이 근무했던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SFGH)에 7500만 달러(약 810억원)를 기부했다. SFGH는 기부금으로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고 병상 수와 응급실 규모를 늘리는 데 쓸 예정이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SFGH는) 샌프란시스코의 중심 공공병원이고 우리 커뮤니티를 위한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이 병원이 치료하는 가족 중 건강보험이 없거나 보험 혜택이 모자라는 경우가 70%가 넘는다"고 기부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저커버그는 하버드대학 시절 만나 챈을 만나 9년간 사귀다 2012년 5월 결혼했다. 영어를 전혀 쓰지 못하는 챈의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지난해 중순부터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등 저커버그는 챈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 /이국명기자

metro Colombia

베네수엘라 생필품 전쟁

쿠데타설까지 확산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가 정치 파국을 부르고 있다.

메트로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가 1년 넘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베네수엘라의 소비자 물가는 93.2%나 상승했다. 유가 하락으로 국가 수입이 줄면서 체감 경기도 나빠졌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제 비누나 세제를 사려면 국영 상점 앞에서 하루 종일 긴 줄을 서야 한다.

생필품 품귀 현상에 항의하는 시위도 잦다. 지난달에는 야당 당수 출신의 지방 주지사 엔리케 카프릴레스가 "무능한 대통령에 맞서 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국의 불안감도 심해지고 있다.

정치적 위기 상황에 몰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다. '불순한 세력'이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경찰은 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약국 체인 파르마토도의 CEO를 '생필품 대란 조장' 혐의로 체포했다. 정부는 파르마토도가 "국민을 상대로 경제 전쟁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언급하지 않았다. 파르마토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영 상점은 아무런 혐의도 받지 않았다. 정부는 당분간 파르마토도를 국영화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La "guerra económica" continúa en Venezuela

◆베네수엘라 대통령 정적 제거 나서

반면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정적 견제에 나섰다. 마두로 대통령은 "'경제 전쟁'을 조장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4월에도 쿠데타 음모가 적발될 정도로 정국 상황이 불안하다. /김다slot정은휘기자

하나·외환銀 통합 시나리오는?

하나금융, 오늘 하나은행장 공식선임… 새판짜기 주력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에 불간 불이 켜지면서 하나금융그룹이 요동치고 있다.

통합을 주도하던 임원 3명은 옷을 벗었고, 직무대행체제인 하나은행장 자리는 공식 선임을 앞두고 있다.

◆ 장기 표류 대비책 마련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9일 그룹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차기 하나은행장을 확정·선출키로 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6일 임추위 1차 회의에서 김병호 하나은행장 직무대행과 함영주 충청사업본부 담당 부행장, 황종섭 영남사업본부 담당 부행장 등 3명을 하나은행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는 법원의 가처분 용인으로 모든 합병 절차가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하나금융은 외환은행과의 합병을 고려해 행장 선임을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합병의 장기 표류 가능성에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하나금융은 오는 6월 말까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은 박성호 전무와 권길주 전무를 각각 전략담당(CSO) 임원과 준법감시인에 선임하고, 곽철승 상무를 재무담당(CFO)에 맡겨 합병 추진 업무를 이어나갈 방침이나.

◆ 김정태 회장 연임은 이상무?

한편 금융권에서는 하다 외환은행 통합 절차 중단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연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오는 3월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 회장은 조기통합 대박론을 내세우며 통합절차를 강행해왔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으로 김 회장의 리더십에 금이 간 것.

물론 금융권에서는 통합과 상관없이 김 회장이 조직을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지난해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미치며 이에 따른 책임론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4분기 51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보다 81.4% 감소한 규모로 모뉴엘과 삼부토건 등 2900억원에 이르는 일회성 요인에 영향을 줬다.

계열사인 외환은행 역시 모뉴엘 대손비용 682억원과 외환파생 관련 손실에 따라 전년대비 17.8% 내린 3651억원의 당기 순익(연결기준)을 시현했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외환카드 분리로 6400억원 자본금이 이탈하는 등 외환은행 실적이 급락하고 있다"며 "수익성 하락은 김정태 회장 경영실패의 결과로 이에 대한 검증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아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대학생 주거 안정 지원"

하나은행은 8일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 마이룸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임차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순수전세는 보증금의 80%, 반전세인 경우 70% 이내에서 신용대출로 취급한다. 개인별 총 신용대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이율은 개인 등급별로 최저 4.7%~5.5%이다. 대출 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이번 1차 한도는 20억원이다.

대출 신청은 하나은행 영업점과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은행 서민재무 상담사를 통한 사전 상담과 대출 관리, 금융교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박아란기자

뛰는 전셋값, 경기지역 분양단지 '호호'

올 11만2752가구 분양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3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기지역 분양시장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비싼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서울 전세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새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 한 달여 만에 1.32%가 올랐다. 2013년 1월과 비교해서는 20.84% 상승했다.

서울 3.3㎡당 평균 전세가 1000만원 시대는 일찌감치 시작됐다. 지난해 3월 1003만원을 기록한 이래 현재 1062만원까지 치솟았다. 작년 경기도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 1051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서울에서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전체 전입 인구 61만6720명 중 서울에서 들어온 인구가 36만960명으로 58.4%로 나타났다.

경기권역 미분양 소진도 두드러진다. 2014년 한 해 미분양아파트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로 총 2173가구가 판매됐다. 고양시(2126가구)와 파주시(1679가구)가 뒤를 이었다.

올해 경기도에서 분양을 계획한 물량도 상당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28만7650가구)의 40% 수준인 11만2752가구가 경기지역에서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청약 광풍을 일으킨 동탄2신도시에서 오는 3월 4개 단지가 분양 대전을 펼친다. 마이에스동서가 A34블록에서 '예일란의 뜰'을, 반도건설이 A37블록과 A2블록에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과 '6.0'을, 우미건설이 C-12블록에서 '린스트라우스1차'를 선보인다.

호반건설은 시흥 배곧신도시와 수원 호매실지구에서 서울 전세가보다 낮은 분양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illegible]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김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71
[illegible]

배곧신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 65㎡ 거실.

4호선 역세권…가변형 벽체 활용

분양돋보기

시흥 배곧 호반베르디움 3차

시흥 배곧신도시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조성되는 신도시로 시흥 안산 스마트허브(구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와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가 가깝다. 배후수요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주변 시화지구 약 2만 8000가구의 노후화 진행으로 새 단지에 대한 기대도 크다.

호반건설이 B11블록에 공급하는 호반베르디움 3차는 지하 1층 지상 29층 20개 동 총 164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65~84㎡로 ▲65㎡A타입 171가구 ▲65㎡B타입 172가구 ▲84㎡A타입 1020가구 ▲84㎡B타입 56가구 ▲84㎡C타입 228가구로 구성됐다.

배곧신도시에 근접해 있는 전철역인 오이도역(4호선)까지 도보 15분 내외로 이동 가능하며 이는 배곧신도시 단지 중 전철역까지 가장 가까운 곳이다.

김대영 분양사업본부장은 "대형 유통망 부족과 대형 종합의료시설이 없다는 점이 시흥시의 불편 사항이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롯데 복합몰 등 유통망 유치가 확정됐고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를 통해 서울대병원도 들어서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반베르디움 3차는 배곧신도시 내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호반건설의 아파트로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돼 눈길을 끈다. 전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맞통풍 판상형 구조, 4BAY(방+거실+방+방) 설계(일부세대 제외)를 선보였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878만원이다. 주택형에 따라 ▲65㎡ 2억1000만~2억3000만원 ▲84㎡ 2억7000만~4억9000만원 수준이다. 발코니 확장은 선택에 따라 960만~1280만원이 추가된다.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2순위, 16일 3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특별공급 12일, 일반공급 25일이다. 계약은 3월 3일부터 5일까지다.

견본주택은 시흥시 정왕동 1771-1번지 서해고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했다. 입주는 2017년 12월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증시 받치는 '큰손' 연기금

7거래일 연속 사자세… "성장성 높은 종목 매수 이어질 것"

'큰 손' 연기금이 국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낙폭이 컸던 대형주들이 반등을 모색하는 등 당분간 연기금의 순매수세가 성장성 높은 종목 위주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는 장 후반 연기금의 매수세 덕분에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장 후반 연기금의 매수세로 다시 상승 반전했다. 결국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68포인트(0.14%) 오른 1955.52에 마감했다.

앞서 연기금은 지난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893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7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이 기간 동안 연기금이 국내 증시에 쏟아부은 돈만 9113억원에 달한다. 특히 연기금은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도에 나선 지난달 28일에도 나홀로 3157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연기금이 하루에 3000억원 이상 순매수한 것은 지난 2011년 8월 5일 이후 약 3년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기간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대장주 삼성전자다. 연기금은 최근 삼성전자 주식 2559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또 현대모비스를 706억원 매수했고, 네이버도 633억원 담았다. 이어 SK텔레콤(576억원), 삼성에스디에스(531억원), 호텔신라(515억원), SK이노베이션(434억원), KT&G(384억원) 등을 매수했다.

코스닥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연기금은 연초부터 지난 6일까지 2200억원 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코스닥 강세의 숨은 공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기금은 지난해 12월 셋째 주부터 8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6~8월 이후 최장기간 순매수 행진이다.

올 들어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엔터주'와 '게임주'다. 연기금은 다음카카오를 864억원 순매수하며 가장 많이 사들였다. 또 CJ E&M(244억원), 에스엠(219억원), 와이지엔터테인먼트(209억원) 등도 순매수했다. 연기금은 이에 내츄럴엔도텍(161억원), 위메이드(131억원), 산성앨엔에스(125억원), 컴투스(104억원), NEW(103억원), 디티앤씨(82억원) 등을 사들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닥시장의 체질 개선이 기관투자가에게 어필하면서 코스닥지수의 추가 상승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분석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신한은행 지역장 162명 워크숍 신한은행은 지난 7일 현장 중심의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장 162명을 선발,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신한은행 제공

"신용카드 해지시 적립된 포인트 사용가능"

금융위·공정위, 7개 카드사 대상 '불공정약관' 개정

앞으로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적립된 포인트는 유효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등을 요청한 고객에게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소멸기간과 사용방법 등을 안내해야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7개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약관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 약관조항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카드사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씨티은행, 광주은행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7개 카드사는 고객의 탈회 시 잔여 포인트를 무조건 자동 소멸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카드 이용계약 종료의 원인이나 사유를 불문하고 잔여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 제한되면 고객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나온 것이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고객의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 시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등을 고지해야 한다.

또 카드를 해지했지만 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과 똑같이 보장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카드 이용계약 종료 시 잔여포인트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명확해지고,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업계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금융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상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개정 약관을 이달 내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아무개기자

ROCKPORT
Bend
the RULES
of MOVEMENT.
Glove Like Fit, Controlled Flexibility,
All Day Comfort.
TOTAL MOTION
ADIPRENE by adidas
facebook.com/RockportKorea

정몽구 현대차 회장일가, 일감 몰아주기 '꼼수'

부당내부거래 개선책 외면하고 지분만 축소
당국·업계 "공정거래법 취지 우롱" 지적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에 성공함으로써 정몽구 현대기아자그룹 회장과 장남 정의선 부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칼날을 일단 피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현대엠코도 현대엔지니어링에 흡수합병되면서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14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의 근본 취지는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과 부당이득 방지에 있는데, 정 회장 부자는 이를 역으로교묘히 이용해 사실상 법정신을 우롱했다는 지적이다. 일감 몰아주기 축소나 방지책을 내놓는 대신 총수 일가 지분율을 딱 법 한도치까지 낮춤으로써 앞으로도 일감몰아주기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천명한 셈이라는 것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 계 등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엠코(주)(합병 뒤인 현대엔지니어링)는 현대차그룹 후계자인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다. 이들 회사는 앞으로도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더라도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독점규제·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중 내부거래 규모가 연간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가 넘는 일감을 계열사로부터 수주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내부거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부당한 내부 거래와 관련된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이익제공기업과 수혜기업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고형은 징역 3년이다.

현대차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내부 거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피하는 건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지 않는 일종의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애초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만든 취지는 재벌 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23조 3항)를 근절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다른 중소기업 등에게 주어질 사업기회가 박탈되고 편법적인 상속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정 회장 부자는 규제 시행 시점이 임박하자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할인된 가격에 처분했다. 매각 가격은 현대글로비스의 5일 종가(23만7000원) 대비 2.74% 할인된 주당 23만500원이다. 매각대금은 약 1조1576억원이다. 파격적인 조건이다.

이번 매각으로 정 회장 부자의 지분율은 43.38%에서 29.99%로 낮아졌다. 상한선인 30%에서 딱 10주가 모자라는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말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74.8%에 달했다.

앞서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도 업계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석연찮은 외의의 합병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건설계열사인 현대건설을 두고 플랜트 등을 주로 설계하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했기 때문이다.

현대엠코는 지난해 4월1일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흡수합병됐다. 당시 현대엠코 지분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25.06%, 정몽구 회장 10%로 총수 일가를 합치면 35.06%였다. 두 회사는 모두 비상장 기업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상 비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이 20%이상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다.

통합후 현대엔지니어링 지분은 정의선 11.72%, 정몽구 4.68%로 합쳐도 16.4%에 그친다. '합병'이라는 '기발한' 카드로 현대엠코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간 것이다.

정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중인 계열사들은 대부분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칼날을 피해가는 작업을 완료했거나 준비중이다.

정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현대엠코(25.06%)와 현대위스코(57.87%)는 지난해 각각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아와 합병됐다. 합병 후 정 부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율은 규제 범위 밑으로 떨어졌다.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이 총 3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현대오토에버도 동종 시스템통합 계열사(SI) 현대C&I를 합병하면서 규제 해소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정 회장 일가 지분은 29.5%로 여전히 규제 대상이지만 향후 상장하게 되면 3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계열사는 이노션과 사립개발 현대머티리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등이다.

광고대행사인 이노션의 경우 정 부회장은 오너 지분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보유지분 30%를 재무적 투자자(FI)에 매각했지만 여전히 정 부회장과 누나 정성이 고문이 보유한 지분은 50%에 이른다. 그러나 이노션이 올 7~8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상장 과정에서 정 부회장과 정 고문이 보유한 지분을 털어낼 가능성이 높다.

현대머티리얼의 그룹 계열사 일감을 줄이는 행태도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현대머티리얼 내부거래 비중은 2012년 61.75%에서 2013년 32.36%로 크게 줄었다. 이 회사는 정 부회장의 사촌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 오너 일가가 정부의 공정거래법 취지를 무색하게 꼼수를 써가며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한국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존경받는 기업인이 취할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아닌 것 같다"며 "규제 회피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노션 등도 합병 또는 지분매각 방식의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프리미엄 디지털 엑스레이 출시

삼성전자, 한국·서유럽 중대형 병원 공략

삼성전자가 디지털 엑스레이 신제품을 내놓고 중대형 병원 중심으로 글로벌 의료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사용성과 영상품질을 극대화한 프리미엄 디지털 엑스레이 'GC85A'를 한국과 서유럽에서 동시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의료진에의 부담을 최대한 간결하도록 사용 편의성을 심혈한 것이 특징이다.

S-디텍터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엑스레이 조사방향을 수직으로 맞춰주는 'S-Align' 기능을 통해 정확하고 선명한 영상을 한번에 확보할 수 있으며 촬영 각도를 다양하게 설정해 몸을 가누기 불편한 환자도 안전하고 빠른 촬영이 가능해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영상처리 기술인 'S-Vue'는 화면 노이즈를 제거하는 등 화질을 개선해 일관된 고화질 이미지를 제공하고, 폐 혈관이나 관절의 중첩부위도 선명하게 표현한다. 삼성 엑스레이 제품 간 S-디텍터 공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S-Share' 기능을 제공하며, 예기치 못한 손상을 줄이도록 방수와 방진이 가능한 1.63kg의 초경량 S-디텍터도 지원한다.

조수인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 사장은 "GC85A는 우수한 영상품질로 진단의 신뢰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를 보다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제주항공 1기 승무원 원조비행 제주항공 1기 승무원이 8일 기내에서 승객에게 창립 10주년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항공 제공

박배호 건국대 교수, 포스코 청암상 수상자 선정

교육상 한동대 · 봉사상 신시아 마웅·비나 스와다야 재단

포스코청암재단은 8일 '2015 포스코청암상' 수상자로 박배호(44) 건국대 물리학부 교수(과학상), 한동대(교육상), 신시아 마웅(56)·비나 스와디아 재단(봉사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응집물질 물리학·나노과학분야의 권위자로 지금까지 발표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은 150여 건이 넘는다.

박 교수는 그래핀 내에서 마찰력이 현저히 다른 구역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노 소재와 소자를 직접 제작하고 새로운 물리적 현상을 측정 연구해왔다. 이 업적으로 아시아-태평양 물리학회연합(AAPPS)이 수여하는 '양전닝(楊振寧)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중국계 미국인 학자)상'(2013)을 수상했다.

한동대는 재정난과 지방대라는 불리함을 딛고 소수 정예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간 인재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다음 달 2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리며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각 2억원(공동수상 각 1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한편 청암상은 청암(靑巖)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기리고 창업 이념인 창의 인재 육성, 희생·봉사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됐다.

/서울소리기자 hi@metroseoul.co.kr

소송의 연속 SAMSUNG LG 신경전 계속

삼성 "OLED 기술유출 유죄판결 불구 결백 어필 유감" vs LG "삼성 무리한 주장"

전자업계 라이벌인 삼성과 LG가 소송을 거듭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가 그 동안 기술경쟁을 통해 성장하며 현재의 위치에 오르긴 했으나 최근 몇년간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사이의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5월 삼성의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이 기소되면서 양시간의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으나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한 채 3년여 동안 소모적인 다툼이 이어졌다.

수원지법은 이날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 법인과 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LG디스플레이는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기술유출 혐의와 관련해 조직적인 공모를 했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결백함이 입증됐다"며 "삼성디스플레이는 피해규모가 5년간 30조원에 이른다고 과대 주장을 하면서 자사와 자사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등의 무리한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는 "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LG디스플레이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9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행사 직전 벌어진 세탁기 훼손 논란으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논란은 삼성전자가 당시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에서 LG전자 조성진 HA사업본부 사장과 세탁기 담당 임원들이 자사의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훼손했다며 국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말 LG전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2015'를 앞두고 조 사장의 출국금지 조치까지 취해지면서 양시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다. 법조계와 전자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변호인은 지난달 말 접촉해 사건 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업 사이에 이런 분쟁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8월에는 삼성전자가 자사와 LG전자의 냉장고 용량을 실험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양사는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다 법원의 중재로 1년만에 갈등을 마무리했다. 2013년에는 삼성전자가 에어컨 시장점유율 1위라는 광고를 내보내면서 LG전자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소모적인 공방이 지속되면서 업계는 국내를 대표하는 두 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 먹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의 세탁기 파손 논란의 경우 주요 외신에서 비중 있게 다루면서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과 같이 양사간의 경쟁이 브랜드를 알리는 노이즈마케팅이 된 경우도 종종 있으나 최근 삼성과 LG간의 신경전은 서로 도움이 안되는 것 같다"며 "어느 한쪽이 승소하더라도 결국은 서로의 브랜드 이미지에 상처만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해진기자 hauna0404@metroseoul.co.kr

LS산전 일본 태양광 발전소 완공

40MW급 현지 최대 규모

LS산전이 수주한 40MW급 일본 최대 태양광 발전소가 15개월만에 완공돼 가동에 들어간다.

LS산전은 지난 2013년 JRE(Japan Renewable Energy)로부터 수주한 이바라키(茨城)현 미토(水戸)시의 미토 뉴타운 메가솔라 파크 공사를 완료하고 6월 가동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JRE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가 일본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에너지 기업이다.

미토 뉴타운 메가솔라 파크는 50만㎡ 부지에 태양전지 모듈 3만9210kW(15만6840장)와 전력개폐장치(RMU), 변압기 등 관련 장비를 갖췄다. 약 3만kW의 출력은 현재 일본 내 가동중인 태양광 발전소 중 최대 규모다. LS산전은 메가솔라 파크 준공을 시작으로 일본 현지 태양광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종세 LS산전 일본법인장은 "JRE의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만큼 발전소 중심의 일본 메가솔라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태양광뿐만 아니라 스마트그리드 토털 솔루션을 앞세워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제나기자

전략제품 소개행사 '삼성포럼' 개막

모나코·방콕·안탈리아·홍콩서 8회 열려

삼성전자는 5일(현지시간) 모나코에서 유럽 포럼을 시작으로 대륙별 전략제품 소개행사인 삼성포럼을 약 3주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2006년부터 시작해 7회째를 맞는 삼성포럼은 지난해부터 신제품을 빠르게 여러 지역에 선보이기 위해 권역별로 동향 운영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모나코, 태국 방콕, 터키 안탈리아, 홍콩 등 4개 지역에서 총 8회 개최되며 다양한 경험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별로 판매와 매장 관리 노하우를 주제로 한 비즈니스 특강 등을 펼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삼성포럼을 통해 전 세계 약 7000여명의 주요 파트너와 미디어를 직접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나코에서 진행된 유럽 포럼에서는 SUHD TV와 유럽스타일에 맞춘 프리미엄 가전을 비롯해 MX7프린터, NX500카메라 등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스마트오븐 MW8000와 중급형 미러리스 스마트카메라 NX500, A3 복합기 'MultiXpress 7(MX7) 시리즈'는 유럽 포럼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미하엘 졸러(Michael Zoeller) 삼성전자 유럽 마케팅총괄 디렉터가 유럽 지역 미디어와 파트너들에게 삼성전자의 2015년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윤부근 삼성전자 대표는 유럽 포럼 환영사를 통해 "IoT의 연결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술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해진기자

고품질 '사운드 바' 2종 나왔다

한차원 성장된 무선기술

LG전자가 대화면 TV의 성능을 한층 높여줄 수 있는 사운드바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LG전자는 9일 고품질 사운드를 구현하는 2015년형 '사운드 바' 2종을 국내시장에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운드 바는 가로로 긴 형태의 스피커로 사용자들이 TV나 다른 스마트 기기와 연결해 더 넓고 풍부한 음향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사운드 바(모델명 LAS750M)는 4.1채널에 360와트(W)의 웅장한 음향을 제공한다. LG전자만의 독자 음장기술 SFX(Sound Field Extension)를 적용해 청취자를 감싸는 듯한 입체감이 탁월하다. 음량이 작아도 음질의 손실 없이 또렷하게 들려주는 '오토 사운드 엔진'도 탑재했다. 블루투스뿐 아니라 와이파이 기능도 지원한다.

모델이 LG트윈타워에서 2015년 LG 사운드 바 '사운드 바(모델명: LAS750M)'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는 카톡이나 라인 등 메신저 앱으로 사운드 바를 조작할 수 있는 '홈챗' 기능도 내장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카톡 창에 "아침 7시 알람"이라고 입력하면 사용자가 7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운드 바가 자동으로 음악을 틀어준다.

LG전자는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사운드 바(모델명: LAS550H)도 함께 선보인다. 이 제품은 2.1채널에 320와트(W)의 출력을 갖췄다. 스마트 기기를 최대 3대까지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다.

가격은 와이파이 기능이 지원되는 LAS750M이 69만 9000원, 블루투스 전용 사운드 바 LAS550H'이 49만 9000원이다.

/양성운기자 yan@

전시장 가고 선물 받고

기아차, 내방 고객 중 추첨 통해 안마의자 등 증정

기아자동차㈜가 전국 기아자 전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는 설 맞이 전시장 방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부모님 아내, 자녀를 위한 각각의 맞춤 맞춤형 경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 온 가족이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2월 한 달 동안 전시장을 찾은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고급 안마의자(1명) ▲또봇 장난감(100명)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215명) 등 총 316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특히 고객 전원에게 3000원 상당의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증정해 설 명절 및 겨울에 어울리는 컵라면, 캔커피 등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기아차 홈페이지(http://www.kia.com)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후 전시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전시장을 방문해 직원에게 이벤트 응모를 신청하면 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2015년 설을 맞아 고객과 함께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전시장 방문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아차는 명절 또는 계절 특성과 연관된 색다른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준기자

더 고급스러워진 프리미엄 미니밴

도요타 '뉴 시에나' 출시… 각종 첨단 편의·안전사양 추가

국내 고급 미니밴 시장의 개척자 도요타 시에나가 한층 세련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세련된 외관은 물론 프리미엄급 인테리어와 편의사양을 갖춰 진정한 '퍼스트 클래스 리무진'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2011년 11월에 국내에 처음 소개된 시에나는 '오토만 시트로 유명한 쾌적한 실내공간', '3열 파워 폴딩 등 다양한 편의장치' 동급 최고의 안전성능 등의 장점이 부각되며 3년간 꾸준한 판매를 기록, 국내에 고급 미니밴 시장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모델이다.

8일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전국 도요타 전시장을 통해 3세대 시에나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2015 뉴 시에나 (사진)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15 뉴 시에나는 2륜인 시에나 3.5 리미티드와 4륜인 시에나 3.5 리미티드 AWD 두 가지다. 모두 미국 내 판매되는 최고급 사양의 모델이다. 특히 4륜 모델은 동급 고급 미니밴에서는 시에나가 유일하다.

가격은 각각 5270만원과 5610만원이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올해 개별소비세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이다. 2015 뉴 시에나에서 단연 돋보이는 부분은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인테리어와 편의·안전사양이다.

센터페시아를 포함한 운전석의 대시보드는 이전 모델대비 풀모델체인지 수준으로 완전히 변경됐다.

차량의 다양한 기능과 정보를 표시하는 4.2인치 멀티 인포메이션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 LCD) 디스플레이,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적용됐다. 에어컨과 방속기 멀티미디어 컨트롤 등의 버튼도 깔끔하게 정리됐다.

도어판넬과 대시보드 곳곳에 새틴크롬과 스티치를 가미한 소프트 패드를 적용하고 통기성이 향상된 가죽시트로 실내소재를 더욱 고급화 했다.

안전사양에 있어서는 동급 최고를 지향한다는 방향성을 그대로 반영했다. 기존 7개에서 동반석 시트쿠션 에어백까지 추가한 총 8개의 SRS 에어백을 탑재(동급 최다), 충돌사고시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김태준기자 fun@metroseoul.co.kr

푸조 SUV '3008 LUX팩' 출시

제논 라이트·디렉셔널 커렉션 사이트·18인치 휠 장착

프랑스 감성과 기술이 담긴 푸조(PEUGEOT)의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www.epeugeot.co.kr)는 푸조 3008 Lux Pack 모델을 국내에 출시하고, 기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차는 악티브(Active)와 알뤼르(Allure)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 악티브에는 제논 라이트와 디렉셔널 커렉션 사이트 등 추가돼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디렉셔널 커렉션 사이트(Directional Correction Sight)는 운전자의 안전한 주행을 돕기 위해 라이트를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다. 알뤼르에는 악티브 사양와 18인치 휠이 추가돼 접지력을 상승시켜 더욱 부드러운 코너링을 구현한다. 값은 각각 3990만원과 4350만원이다.

출시 기념 2월 한달간 프로모션도 한다. 무이자 금융 프로모션과 함께 300만원상당의 주유권이 제공된다. 300만원 상당의 주유비는 연비가 좋은 푸조 3008 악티브 모델(연비 18.1km/ℓ)의 경우 연간 평균 주행거리 1만5000km (에너지관리공단 참고)를 기준으로 3년치 주유비에 해당된다. 프로모션은 전국 20개의 푸조 공식 전시장에서 동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면 된다.

푸조 3008은 볼륨감 있는 디자인, 뛰어난 공간활용도, 안정적인 드라이빙 퍼포먼스, 높은 연비효율 등 세계적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이다. 특히 1.6 e-HDi 엔진이 장착된 푸조 3008 악티브 모델은 오프로드에 강한 그립컨트롤 기능이 탑재되어 팸지, 스노우, 진흙, 샌드, ESP 오프(ESP Off) 총 5가지 주행 모드를 도로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김태준기자

쉐보레, 전국 대리점 워크숍서 100여명 시상

'새로운 도약! 뉴 챕터' 주제 하에 목표 달성 결의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Chevrolet)가 지난 5일 충남 대전 ICC호텔에서 한국지엠 세르지오 호샤(Sergio Rocha) 사장을 비롯, 전국 쉐보레 대리점 대표와 딜러 등 4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쉐보레 전국 대리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로운 도약! 뉴 챕터(New Chapter)'라는 주제로 지난해 한국지엠과 딜러, 대리점이 달성한 성과를 축하하고, 2015년은 성공적인 한 해로 만들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한국지엠이 내수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업일선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딜러, 대리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지엠은 이들과의 강화된 파트너십, 경쟁력있는 제품 출시,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 케어 등 통해 올해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며 한국지엠의 새로운 챕터를 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뛰어난 영업실적과 고객 관리로 내수판매 신장에 공헌한 100여명의 우수 딜러와 대리점 대표들을 시상하는 한편, 올해 내수 시장점유율 성장과 마케팅 인사이트 영업 만족지수 1위 달성 등 2015년의 핵심 사업과제도 함께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로운 도약,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 강연 외에도 한국지엠 영업AS 마케팅부문 내 임원들이 진행하는 토크쇼 방식의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회사와 딜러, 대리점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다.

올해 핵심 사업목표가 쓰여진 액자에 개개인의 친필 사인을 기입, 이를 대형 케꽂이 모형에 꽂는 퍼포먼스를 통해 행사에 참여한 이들의 목표 달성 의지를 고취시키기도 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 한해 동안 쉐보레 제품의 뛰어난 경쟁력은 물론,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와 혁신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15만4381대를 판매해 2002년 회사 출범 이후 연간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김태준기자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전국 쉐보레 대리점 대표 등이 2015년 목표 달성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국지엠 제공

OD COMPANY and
Lotte Entertainment present

뮤지컬 드림걸즈

DREAMGIRLS

2015년 2월 26일 샤롯데씨어터 상륙

예매 | 인터파크 오픈리뷰 클립서비스 옥션 YES24 샤롯데씨어터 문의 | 오픈리뷰 1588-5212

센 언니 콘셉트 우리 자부심

걸그룹 최초 트랩 힙합 도전…강인한 느낌 표현 작사·작곡부터 앨범 콘셉트까지 멤버 전원 참여

미니 6집 '미쳐'로 컴백한 포미닛

5인조 걸그룹 포미닛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2009년 데뷔 이래 가장 '센' 느낌의 음악을 담은 미니 6집 '미쳐'로 컴백한 것. 포미닛은 데뷔 때부터 여전사 이미지를 추구해 왔다. 하지만 2013년 '이름이 뭐예요?'를 시작으로 '뭘 좋아해?' '오늘 뭐해' 등의 노래를 통해 깜찍하고 발랄한 의외의 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포미닛은 이번 앨범에서 지난 2년 동안 쌓아왔던 에너지를 한 번에 폭발시킬 예정이다.

◆ 초심으로 돌아가다

타이틀곡 '미쳐'는 그동안 댄스·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던 포미닛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트랩 힙합 장르다. 최근 몇 년간 힙합신을 휩쓸었던 트랩 비트를 시도하는 걸그룹은 이들이 처음이다.

"역대 앨범 중 멤버들이 참여를 가장 많이 한 앨범이에요. 부담 되지만 설렘도 커요. 예전에 저희들이 보여줬던 강한 여전사 이미지로 돌아가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가윤)

이들은 인터뷰 내내 모두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팀 결성 초기부터 사장님이 센 이미지나 무서운 언니 콘셉트를 원했어요. 멤버 한 명을 빼놓아 사진 찍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제작년엔 대중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저희의 색깔을 잠시 내려두고 말랑말랑한 모습을 보여드렸죠. 이번 앨범을 통해 포미닛이 '센 언니'로 자리를 굳히길 원해요." (현아)

데뷔 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막내 소현이 "지금이 더 세다"고 답하자 가윤은 "어릴 땐 그저 파워풀하기만 했다면 지금은 노련미가 더해졌다"며 "그 땐 운동화 있다면 지금은 킥이힐 신고 춤을 춘다는 것도 큰 차이"라고 덧붙였다. 지윤 역시 "예전엔 잘 몰라서 모든 동작에 힘을 실었는데 지금은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멤버들은 막내 소현이 말하면 그저 귀엽다는 듯 이 바라봤다.

"올해 목표가 '이자가 되자'예요. 뭘 해도 다들 귀엽다고만 하니까. 기분은 칭찬이어도 팀에겐 마이너스 요소라 생각하거든요." (소현)

◆ 예쁜 것도 좋지만…

이들은 현재 활동하는 걸그룹 중 1990년대 디바·베이비복스 등 '강렬한 여전사' 콘셉트를 잇는 유일한 팀이다. 걸그룹이기에 앞서 여자로서 예뻐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터.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쟤네 진짜 미쳤네'라는 소리를 들어볼 정도로 제대로 하고 싶어요. 안 예뻐 보인다고 속상하거나 하진 않아요. 오히려 제게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알아서 기뻤어요." (현아)

"걸그룹이라고 굳이 예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예쁜 모습은 무대 위가 아니어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곡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죠." (지현)

포미닛은 이번 앨범이 자신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 같다고 말했다.

"강한 이미지는 저희에게 큰 자부심이에요. 예쁘고 섹시한 것도 좋지만 최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그룹이 많이 없으니까요. 이 분야에서 최고가 아닌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그룹이 되길 바라요." (소현)

"디바·베이비복스 선배님들의 계보를 이을 수 있다면 영광이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포미닛이 될 거예요. 이번 노래 '미쳐'로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딱 한번쯤 미쳐줬으면 해요." (현아)

무대 위에서 내려왔을 때도 여전사 같은 모습일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소현은 "그냥 동네 언니들"이라고 말했다.

"평상시와 무대 위는 정말 달라요. 특히 지윤언니는 평소에 메이크업도 안하고 다니거든요. 매일 자연스러운 모습만 보다 오늘 화장한 걸 보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웃음)." (소현)

"평소에도 그러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일상에선 웃기는 언니지만 무대에선 카리스마를 보여주려고 하죠." (지윤)

/김지현기자 angie@metroseoul.co.kr

---

star bag

중국 팬과 뜨거운 만남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중국 베이징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8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박유천은 팬미팅을 통해 "계속해서 응원해준 팬들에게 좋은 음악, 좋은 연기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찰관으로 스크린 컴백

배우 **김재욱**이 영화 '다른 길이 있다' 출연을 확정했다.

'다른 길이 있다'는 현실의 무게감에 짓눌려 힘겹게 살아가는 남녀가 춘천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김재욱은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경찰관 수완 역을 맡았다.

신신애·현숙 노래 리메이크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개그우먼 **천수정**이 이달 중 새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쇼맨그루부가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리메이크 앨범에서 천수정은 신신애의 '세상은 요지경'과 현숙의 '꿈이좋아' 등을 다시 부른다.

쇼핑호스트와 결혼식

배우 **조재윤**이 품절남 대열에 합류했다. 조재윤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느레스 가든에서 9세 연하의 쇼핑 호스트 조은애와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9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친하게 지내다 지난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사랑에
빠진
나는
호구
입니다
오늘 밤 11시
tvN
첫 방송
매주
[월-화]
방송
tvN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
유이 · 최우식 · 임슬옹 · 이수경
기획 tvN · 제작 MI
연출 표민수 · 박찬율 극본 윤난중

film review

/정형호기자

찬란하게 빛났던 청춘의 송가

■갓 헬프 더 걸

영화 '갓 헬프 더 걸'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출신 밴드 '벨 앤 세바스찬'의 리더인 스튜어트 머독이 2009년에 발표된 동명의 프로젝트 음반에서 시작됐다. 음반을 만들면서 구상한 시나리오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인 킥스타터를 통해 모은 제작비로 마침내 한 편의 영화가 됐다. '벨 앤 세바스찬'이 대학에서 듣은 뮤직 비즈니스 수업의 프로젝트로 시작돼 진짜 밴드가 된 것처럼 '갓 헬프 더 걸' 또한 우연 같은 필연으로 완성됐다.

영화의 주인공인 이브(에밀리 브라우닝)와 제임스(올리 알렉산더), 캐시(한나 머레이)는 몸은 다 자랐지만 여전히 어른이 되지 못한 '벨 앤 세바스찬' 노래에 나올 법한 인물들이다. 거식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지만 자유를 꿈꾸는 이브, 노래를 만들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캐시, 그리고 밴드를 꾸려 멋진 팝 음반을 만들고 싶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제임스가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밴드를 만들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줄거리다.

초창기 '벨 앤 세바스찬'의 음악처럼 '갓 헬프 더 걸'도 아마추어리즘이 물씬 묻어난다. 빈티지한 의상과 음악, 엉뚱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그리고 글래스고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데 담은 영화는 한 마디로 '힙(세련되고 현대적이라는 뜻)'하다. 세 주연 배우가 직접 부르고 추는 노래와 춤은 영화를 더욱 사랑스럽고 귀엽게 만든다. 하지만 영화의 감성적인 외피에 비해 내용적인 면은 다소 빈약하다. 몇 편의 뮤직비디오를 묶어 놓은 듯한 느낌도 든다.

각자 나름의 부족함을 지닌 소년소녀들이 만든 밴드는 마침내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다. 그렇게 청춘의 여름은 찬란한 빛과 함께 지나간다. 누군가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얻을 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찬란한 순간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임을 느끼며 자신만의 세상으로 다시 발길을 옮긴다.

마냥 사랑스러운기만 했던 영화는 그렇게 현실의 한 부분을 건드리며 막을 내린다. 그 엔딩이 아름다운 멜로디 속에서도 세상에 대한 냉소를 포기하지 않던 '벨 앤 세바스찬'의 음악을 고스란히 닮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2월 12일 개봉.

사랑스럽고 귀여운 빈티지 감성으로 담은 성장담

"우리 결혼했어요"

윤상현·메이비 8일 결혼

또 하나의 배우-가수 부부가 탄생했다.

배우 윤상현과 가수 겸 작사가 메이비는 8일 오후 4시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윤상현과 메이비는 지난해 4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7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왔다. 11월 열애 사실을 인정한데 이어 곧바로 결혼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당초 두 사람의 결혼식은 많은 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결혼식으로 치러질 계획이었다. 그러다 양가 가족들이 조용히 식을 치르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와 사전 인사와 기자회견, 하객 포토월 등의 행사 없이 모든 예식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편 윤상현과 메이비는 결혼을 기념하는 웨딩송 '봄숭아 물들다'를 디지털 싱글로 9일 발표한다. 메이비가 작사에 참여한 노래는 봉숭아 꽃잎 물을 물이듯 서로에게 물들여 간다는 내용으로 사랑을 싹 틔우는 연인의 풋풋하고 설레는 감정을 표현했다. 음원 수익금 일부는 소외 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국제시장' 무서운 뒷심

1300만 돌파…한국영화 역대 흥행 2위

영화 '국제시장'이 1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영화 역대 흥행 2위에 올랐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국제시장'은 개봉 53일째인 7일까지 누적 관객수 1302만3664명을 기록하며 '괴물'(1301만)을 제치고 역대 한국영화 흥행 2위에 올랐다.

개봉 8주차 주말에 접어든 '국제시장'은 여전히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머물며 무서운 흥행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일일 박스오피스 1위에 다시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재 '국제시장'은 역대 흥행 순위에서 '명량'(1761만)과 '아바타'(1362만)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설 연휴까지 뒷심을 발휘한다면 '아바타'도 충분히 제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시장'은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황정민, 김윤진, 오달수 등이 출연했으며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이 연출했다.

/장병호기자

온라인 핫 이슈

임영규, 연이은 난동에 결국 구속

탤런트 임영규(사진)가 잠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임영규를 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임영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안경을 깨트리기도 했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청담동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의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장병호기자

지현우 '앵그리맘'서 착한남자 변신

배우 지현우(사진)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남자로 변신한다.

지현우는 MBC 새 수목극 '앵그리맘'에서 박노아 역을 맡았다. 명성고 신임 국어교사로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고 믿는 순수한 남자인 그는 사람 말을 잘 믿기 때문에 호구 교사로 불린다.

그는 졸지에 심상치 않은 전학생 조방울(김희선)을 만나면서 비리로 얼룩진 학교 재단의 비밀과 맞서 싸운다.

'앵그리맘'은 날라리였던 엄마가 다시 고등학생이 돼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통쾌활극이다. 2014 MBC 극본공모 미니시리즈 부문 우수상 작품이다. '킬미힐미' 후속작으로 내달 중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이 8일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21분 헤딩으로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AP 연합뉴스

기성용 체력 한계 어디까지

소속팀 복귀 선덜랜드전 풀타임 소화··후반 극적 헤딩 동점골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기성용(26 스완지시티)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즌 4번째 골을 터뜨렸다.

기성용은 8일(한국시간)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선덜랜드와의 2014-2015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21분 1-1 동점을 만드는 골을 꽂았다.

지난해 12월 21일 헐시티와의 17라운드 이후 7경기 만에 나온 시즌 4호골이다. 공격포인트는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와의 20라운드에서 기록한 도움 하나를 포함해 5개다.

스완지시티는 기성용의 활약 속에 선덜랜드와 1-1로 무승부를 거둬 최근 정규리그에서 1승1무를 기록했다. 순위는 9위(승점 34)를 지켰다.

기성용은 지난달 열린 아시안컵에서 맹활약한 뒤 지난 4일 출국, 이날 소속팀에서 첫 경기에 나섰다.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주장을 맡은 그는 전 경기에 전방 출전해 대부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체력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영국으로 복귀하자마자 선발로 경기에 나섰고 복귀전부터 팀의 패배를 막는 동점포를 가동했다. 특히 다른 선수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며 풀타임을 소화해 강철 체력을 과시했다.

기성용은 이날 0-0으로 맞서던 전반 40분 존조 셸비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프리킥을 재치있게 오른발로 방향을 틀어 골을 골대 안에 넣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아쉬움을 남겼다.

팀이 뒤진 채 후반전을 맞이하자 기성용은 공격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후반 21분 카일 노턴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멋진 다이빙 헤딩으로 마무리해 동점골을 뽑아냈다.

경기 후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활발한 움직임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기성용에게 평점 7점을 부여했다.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으로, 도움을 올린 노턴이 최고 평점인 8점을 받았다.

스완지시티 역시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성용이 자신이 뛰었던 선덜랜드를 상대로 보기 드문 헤딩골을 터트려 팀을 도왔다"며 "아시안컵에서 전 경기를 소화하며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지만 이날 풀타임을 소화했고, 시즌 4호골을 꽂았다"고 칭찬했다.

한편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볼턴을 떠나 크리스털 팰리스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이청용은 아시안컵에서 당한 부상의 여파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레스터시티를 1-0으로 제압했다.

QPR의 윤석영은 사우샘프턴과의 홈경기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징계 복귀 호날두 헛발질만

'마드리드 더비' 레알 0-4 충격패

스페인 프로축구 '마드리드 더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8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비센테 칼데론에서 열린 2014-2015 프리메라리가 2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0-4로 패했다.

이로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의 6차례 대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갔다. 올 시즌 스페인 슈퍼컵, 코파델레이, 프리메라리가에서 2차례씩 맞대결한 결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4승2무로 레알 마드리드에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끝내고 돌아왔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주전 공백이 컸다. 5일 세비야와의 프리메라리가 경기에서 하메스 로드리게스, 세르히오 라모스가 다쳐 이날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여기에 페페와 루카 모드리치도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고, 마르셀루 역시 출장 정지 상태였다.

징계 이후 복귀한 골잡이 호날두는 풀타임 출전했지만 단 한 차례 슈팅에만 그치면서 이름값을 제대로 못했다. /김민준기자

레알 마드리드의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8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경기에서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표정을 지으며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있다 /AP 연합뉴스

오승환 첫 불펜피칭 '한신 전설' 극찬

에나쓰 코치 "팔·하체 등 선동열 보는 듯"

오승환(33 한신 타이거스·사진)의 첫 불펜피칭에 한신의 전설적인 투수 에나쓰 유타카(67) 코치와 라이벌 요미우리 자이언츠 전력분석원이 "오승환은 훌륭한 투수"라며 극찬했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7일 "오승환이 6일 일본 오키나와 기노자구장에서 첫 불펜피칭을 했다"고 전했다. 하프피칭 16개로 몸을 푼 오승환은 불펜피칭으로 31개의 공을 던졌다.

한신에서 프로 선수생활을 시작해 일본프로야구 통산 206승 163세이브를 기록한 전설적인 투수 에나쓰 코치는 "팔 동작과 하체 사용이 선동열과 비슷하다"며 오승환의 은사이기도 한 국보투수 선동열 전 KIA 타이거즈 감독과 오승환을 비교했다.

"훌륭한 투구"라고 오승환을 칭찬한 에나쓰 코치는 오승환과 10분 정도 대화하며 "지난해 봄에는 슬라이더가 좋았는데 여름에 팔 동작이 바뀌었다. 맞을 때 보면 몸이 앞서 있는데 의욕이 지나쳐서 투구할 때 몸이 빨리 나오면 안 된다"고 기술적인 조언도 했다.

오승환은 "첫 불펜피칭은 구위보다 균형잡힌 투구 자세를 더 신경썼다"며 "에나쓰 코치도 '계약에 맞춰 천천히 만들어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신 라이벌 요미우리의 전력분석원도 오승환의 투구를 유심히 지켜봤다. 미사와 요미우리 전력분석원은 "첫 불펜피칭임에도 공에 힘이 넘쳤다"고 평가하며 "지난해 클라이맥스시리즈 때 오승환에 막혔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무 전력분석원은 "제구와 몸의 균형이 좋았다"며 "직구가 안정되고 변화구도 좋은 최정상급 투수"라고 극찬했다. /김민준기자

마라도나, 전북 훈련장 깜짝 방문

최강희 감독과 찰칵··"올해 한국 찾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챔피언' 전북 현대의 훈련장에 아르헨티나 축구영웅 디에고 마라도나(55)가 '깜짝' 방문했다.

전북 구단은 8일 "마라도나가 전날 팀의 전지훈련 캠프를 방문해 최강희 감독과 만나 훈련 성과 등을 물었다"며 "이번 방문은 팀의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에이전트와 두바이 문화관광국장이 만든 이벤트"라고 밝혔다.

마라도나는 2012년부터 UAE 두바이의 스포츠 명예대사로 활동하고 있고, 전북이 두바이에서 전지훈련을 치르면서 방문하게 됐다.

마라도나는 최 감독에게 "2015년에도 행운이 함께 해 우승하기를 바란다"며 "올해 전북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최 감독은 "두바이가 날씨와 훈련 제반 시설 등이 아주 훌륭하다. 전지훈련을 잘 마무리 하고 있다"며 답례로 선수단 전체의 사인이 담긴 등번호 10번의 유니폼을 선물했다.

훈련을 끝낸 선수들은 마라도나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 현대 훈련장을 찾은 마라도나가 최강희 감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학대피해 받은 미성년 자녀 친권소송 직접 청구 길 열려

대법원 개정안 의결

부모의 학대나 폭력 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1991년 1월 제정된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위원회는 기존 조항을 대폭 손질해 통상 '약자'의 입장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의결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관계 가사소송 등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부모의 학대로 고통을 받지만 소송을 낼 수 없던 자녀는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이나 친권정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절차 보조인'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소송을 도와줄 어른을 찾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법률·심리 전문가인 절차 보조인을 연결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로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듣는다는 원칙도 명시된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 부모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 시한을 30일 이상 어기면 감치 명령이 내려진다. 게다가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과태료 처분 외에 직접지급과 담보제공 명령,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혼소송 중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 쪽 편의를 고려해 관할 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과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조문도 신설되며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한 상임조정위원 제도도 도입된다.

법원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 개정안 1조의 목적·이념으로 천명했다"며 "사회 변화를 반영한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춥다 추워!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고 한낮에도 체감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등 추위가 다시 찾아왔다. /연합뉴스

"돈 선거 근절합시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를 30일 앞둔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지방공무원 1만7561명 채용

작년보다 3474명 늘어 방재안전직도 모집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만7561명의 지방공무원을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3474명 늘어난 규모로 사회복지 서비스 등 자치단체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분야별 채용 인원은 ▲일반직 1만6164명 ▲특정직(소방) 1356명 ▲별정직, 임기제 41명이다.

또 장애인·저소득층 고졸 채용규모도 늘어난다. 7~9급 장애인 구분모집 인원은 작년보다 107명 늘어난 786명이며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지난해보다 70명 증원된 537명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가운데서도 3명이 선발될 예정이며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작년보다 17명 늘어난 284명을 선발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규모는 작년(632명)의 2배 이상인 1317명이고 이들은 오전 또는 오후에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재안전직은 7·9급으로 91명 모집한다.

각 시도의 시험 일정과 선발인원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황재용 기자

다가구주택 1500가구 저소득층에 임대

서울시는 올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주택 1500가구를 매입해 저소득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평균 보증금 1500만원에 월 15만원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장애인은 100% 이하)다.

또 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도 희망자와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12일부터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단지 이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지역에서 50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 환경이 열악해 매입을 자제했던 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대해서도 공동체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황재용 기자

흡연 경고그림 입법화 속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정부가 흡연의 폐해를 섬뜩하게 고발하는 경고그림의 담뱃갑 삽입을 본격 추진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흡연 경고그림 도입과 금연구역 확대, 건강증진기금의 금연사업 목적 사용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심의한다.

또 보건복지위는 흡연 경고그림 게시 의무화 방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경고그림 표기 법안을 둘러싼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분위기를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 의원이 경고그림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고그림 도입방안이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고그림은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가격정책만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흡연의 문제를 알리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비가격정책 중 하나다.

한편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55개 국가가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특히 2001년 세계 최초로 경고그림을 추진한 캐나다는 도입 후 흡연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황재용 기자

경찰, 22일까지 방범활동

경찰청이 설 전후인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적인 특별방범활동을 벌인다.

우선 15일까지는 금융기관과 편의점 지역, 현금다량 취급업소 등 범죄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진단을 하고 가정이나 상가에서 스스로 범죄위험을 진단할 수 있도록 자위방범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본격적인 설 연휴 기간인 16일부터는 방범진단 결과를 활용해 범죄취약지 위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방범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살인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 명절기간 발생하는 긴급사건에 대해서는 112 종합상황실과 지역경찰, 형사·교통 등 전 경찰이 총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특수강도·강간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단계별 경계검보 발령시스템'을 활용해 지휘요원의 근무를 강화하고 야간근무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재용 기자

인사

■보건복지부
서기관 승진 ▲대변인실 김유두 ▲감사담당관실 김윤진 ▲보건의료정책국 김대년 ▲인구아동정책관실 송대의 ▲사회복지정책실 정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보이사 지대범

부고

▲이귀순씨 별세, 이승훈(광남일보 정치부 기자)씨 조모상 = 7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101호, 발인 9일, (062)527-1000
▲이원범씨 별세, 이재광·남숙희 부친상, 이연석(MG손해보험 부사장)씨 장인상 = 6일, 대전 한국병원 장례식장 40호, 발인 8일 오전 7시30분. (042)631-4444
▲이종식씨 별세, 박종현(나눔로또 관리본부장)씨 장인상 = 6일, 강동구 상일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1호, 발인 8일 오전 8시 (02)440-8800
▲유지순씨 별세,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씨 모친상 = 7일 오전 5시 대전시 중구 대사동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 (042)280-8181
▲윤기숙씨 별세, 윤해선(로지유텍스 대표)·허경록 부친상, 김정돈(가톨릭대 의학과) 교수·허원범씨 시부친상 = 7일 오전, 부산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051)256-7015, 010-5012-0798
▲최인이(86)씨 별세, 최현태(문화체육관광부 지도문화콘텐츠 사업과장)씨 부친상 = 7일, 경남 진주시 초전동 214-1 진주전주장례식장 303호, 발인 9일 오전 7시, (055)756-4141

롯데칠성음료

레쓰비 카페타임 마시고, 캔 따개에 숨겨진 행운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직장인을 위한 10,049개의 응원경품이 쏟아집니다!

행사기간 :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2월 13일

참여방법 1

QR코드를 스캔하고
이벤트 사이트 방문
(www.cafetimeevent.co.kr)

참여방법 2

캔 따개 뒷면의
행운번호를 입력

EVENT 1

- 1등 18명 — 아이폰 6 (64GB)
- 18명 — 플레이스테이션 4
- 1만명 — 레쓰비 카페타임 모바일 상품권

EVENT 2

- 4명 — 200만원 여행상품권
- 4명 — 맥북 프로 13 (Retina, 128GB)
- 5명 — 캐논 EOS 700D